13-05 2013.01.22.

현안과 과제

경제적 행복감 현실과 전망
- 새 정부下 국민행복감 상승 기대 크다

현대경제연구원

본 보고서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견해임을 밝혀두며, 보고서 인용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요 약

□ 경제적 행복감 현실과 전망- 새 정부下 국민행복감 상승 기대 크다

○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, '국민 행복 제고'

- **새 정부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**
  -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민주화, 창조경제 속 일자리 창출,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에 기반한 정책을 수행할 예정

- **새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어느 정도이고, 행복감 제고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음**

○ 경제적 행복감 여전히 낮다

- **내수 부진, 생활물가 불안 등의 국내 경기 하락세에 따라 2012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40.4로 전기대비 0.8p 하락함**
  - 각 항목별로도 일자리,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, 경제적 우위, 경제적 발전은 전기대비 상승했지만 경제적 평등, 경제적 불안과 전반적 행복감은 하락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

- **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13년 상반기 128.6으로 2년만에 상승 전환되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음**
  - 2013년 상반기 국내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전기대비 7.6P 상승

○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vs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

- **2012년 12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, 미혼의 20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추정**

- 반면,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 저학력의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로 추정

○ 국민 행복 제고 가능성 점검

- 2012년 12월 현재 우리 국민 80.6%의 경제적 행복감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됨

· 대외 불확실성, 내수 부진 및 생활물가 불안정 등으로 우리 국민들 중 51%는 경제적 행복감이 1년 전과 비교해 '변화가 없다', 29.6%는 '나빠졌다'고 응답함. 단지 19.4%만이 경제적 행복감이 '좋아졌다'고 응답함

- **소득 증가와 취업은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 상승, 소득 감소와 물가 불안은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조사됨**
  · 경제적 행복감의 개선에는 소득 증가(61.9%), 취업(24.9%), 자산가치 상승(9.1%) 등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. 반면, 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소득 감소(39.5%), 물가불안(33.8%), 자산가치 하락(11.4%)이 가장 많았음

- **우리 국민의 42.5%는 2013년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함**
  · 2013년 새 정부 출범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'좋아질 것이다' 라는 응답자가 42.5%로 2012년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졌다는 응답자(19.4%)의 2배가 넘어 기대감이 높았음

- **특히,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, 가계부채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됨**

○ 시사점

- **첫째, 국민 대다수가 소득감소와 물가 불안이 경제적 행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판단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**
  · 기후변화, 환율 급변동 등 생활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별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, 가계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보육·교육비 지원,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정책 보완도 필요

- **둘째, 국민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전망 확충이 요구**
  ·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대기업 투자 유인과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꾸준히 공급
  · 특히, 경제적 행복감이 급락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재교육 등 지원 체계를 갖추고 연령별 일자리 연계 방안 등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다양화

- **셋째, 2013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히는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세부화**
  · 세계 경기의 높은 변동성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수출 급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
  · 또한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부채를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,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으로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보완

1.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, '국민 행복 제고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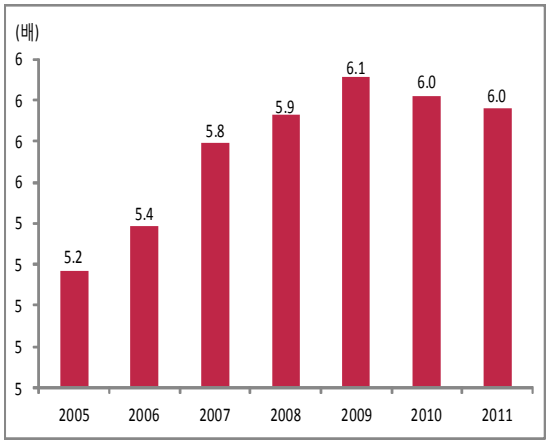
○ 새 정부는 '국민 행복', '민생'과 '삶의 질'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모든 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임

- 경기 둔화, 양극화 심화 및 삶의 질 악화가 우리 국민의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  ·투자·소비의 부진에서 시작된 내수 위축이 일자리의 저하와 영세 자영업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
  ·내-외수, 대-중소기업, 고소득층과 취약계층 및 지역 간 양극화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  ·한편, 지역사회 결속력의 약화, 높은 체감 물가와 실업률, 높은 자살률과 범죄율 등이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

- 한편,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, 창조경제 속 일자리 창출,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에 기반을 둔 정책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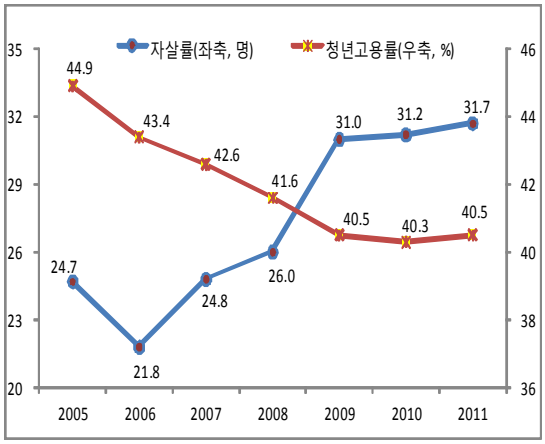
○ 새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감은 어느 정도이고, 행복감 제고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도출해 볼 필요성이 높아짐

< 소득 양극화 지표(5분위배율) 추이 >



자료: 통계청, 한국은행, 현대경제연구원.
주: 5분위배율은 균등화 시장소득의 도시 2인가구 기준임.

<자살률과 청년고용률 추이>



자료: 통계청.
주: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이고, 청년 고용률은 15세부터 29세임.

2. 경제적 행복감[1] 여전히 낮다

1) 경제적 행복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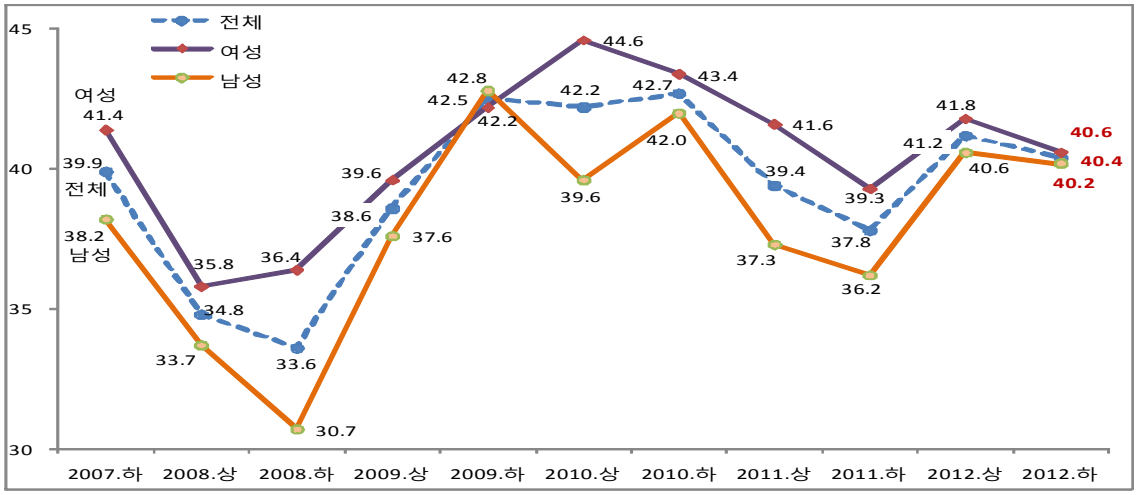
○ **2012년 12월 현재, 경제적 행복지수[2]는 국내 경제 부진 등으로 지난 조사(2012년 7월)보다 0.8p 하락한 40.4를 기록. 반면,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년 만에 상승 반전**

- 2012년 상반기(10회) 조사에서 41.2로 상승했던 경제적 행복지수가 2012년 하반기 11회 조사에서는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40.4로 전반기보다 0.8p 하락
  - 남녀별로 보면, 여성의 행복지수가 40.6로 전기대비 1.2p, 남성도 40.2로 0.4p 하락. 남녀 간 경제적 행복지수의 격차는 0.4p로 2009년 이후 가장 좁아짐

- 경제적 행복지수의 하락은 2012년 하반기 내내 지속된 내수 부진, 생활물가 불안 등의 국내 경기 하락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

- 3회 연속 하락했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12년 하반기(11회) 전기대비 7.6p 상승한 128.6를 기록. 이는 2013년 출범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

< 경제적 행복지수의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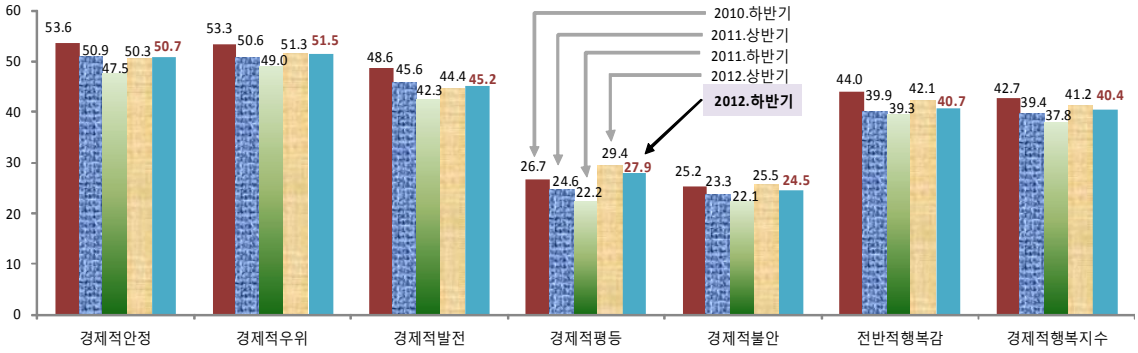


1) 제 11회 경제적 행복지수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5일간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,014명을 전화설문했으며 오차범위는 95% 신뢰수준, ±3.08%임.
2)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, 구성요소, 계산 방식 등 자세한 설명은 별첨 자료 참조.

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요소 중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불안이 낮아 전체 수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

- 경제적 안정, 경제적 우위 및 경제적 발전은 경제적 행복지수보다 높았지만, 경제적 평등과 경제적 불안감은 여전히 낮아 경제적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
  · 경제적 행복지수의 각 구성요소들 중 일자리,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안정은 0.4p, 경제적 우위 0.2p 경제적 발전 0.8p 소폭 상승했지만, 경제적 평등은 1.5p, 경제적 불안 1.0p, 전반적 행복감도 1.4p 낮아져 경제적 행복지수가 소폭 하락함

< 항목별 경제적 행복지수 비교 >



○ 2013년 상반기에 대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28.6으로 2년 만에 상승 전환

- 2013년 상반기 국내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[3]는 전기대비 7.6p 상승
  · 2012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0.8p 하락한 40.4를 기록. 반면, 미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 지수는 7.6p 상승한 128.6을 기록하면서 2013년 상반기에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소폭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짐

<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의 추이 >

	2008. 상반기	2008. 하반기	2009. 상반기	2009. 하반기	2010. 상반기	2011. 상반기	2011. 하반기	2012. 상반기	2012. 하반기	**2013. 상반기**
남 성	115.0	121.6	127.8	139.8	142.8	140.6	122.0	114.8	115.6	**126.0**
여 성	131.1	129.2	129.6	148.2	149.6	153.8	137.4	135.8	126.2	**131.2**
전 체	**123.1**	**125.6**	**128.8**	**144.2**	**146.4**	**147.6**	**129.8**	**125.6**	**121.0**	**128.6**

3)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,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

2) 부문별 조사 결과

○ (직업별)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

- 직업별로 보면,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경제적 행복감만이 전기대비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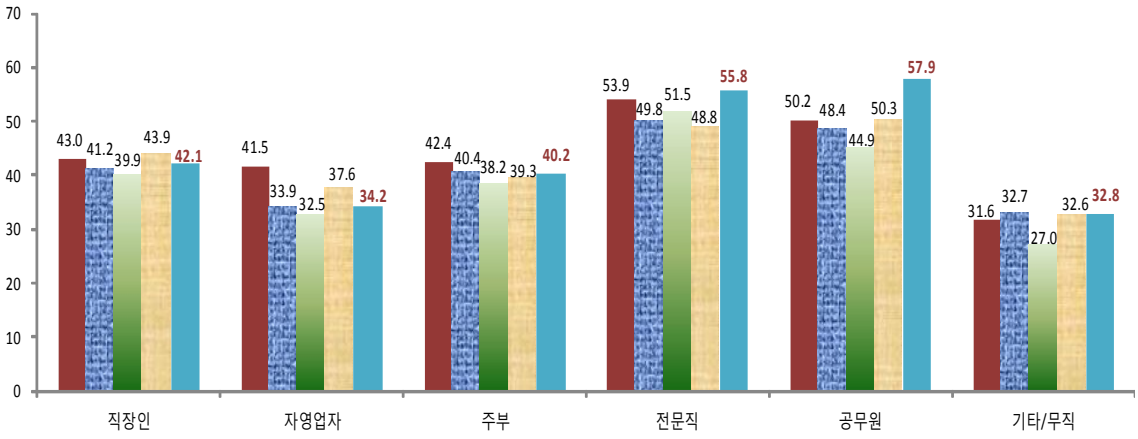
· 2012년 하반기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직업군은 공무원과 전문직으로 전기대비 각각 7.6p, 7.0p 상승한 57.9, 55.8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

· 반면,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전기대비 3.4p 하락한 34.2로 4회 연속 30대에 머물렀음

- 하지만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직장인을 제외한 전 직업군에서 상승

·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자영업자, 주부, 기타/무직군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. 하지만 전기대비로는 자영업자(10.6p), 주부(23.4p), 기타/무직(11.4p) 모두 상승하여 2013년 상반기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개선됨

< 직업[4]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

	직장인		자영업자		주부		전문직		공무원		기타/무직	
경제적 행복지수	42.1	-1.8	34.2	-3.4	40.2	0.9	55.8	7.0	57.9	7.6	32.8	0.2
경제적 행복 예측	134.6	-2.0	121.2	10.6	124.4	23.4	200.0	66.6	154.2	13.0	101.2	11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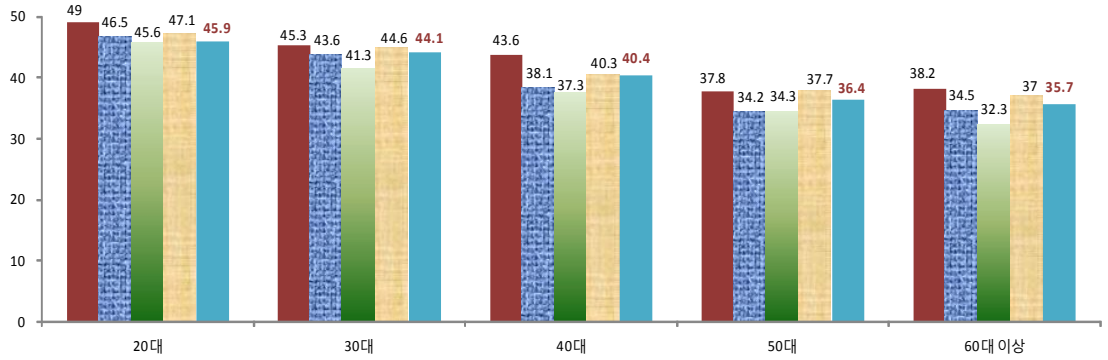
4)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인 2012년 상반기와의 격차를 나타냄

○ (연령별)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함

-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았음
  · 경제적 행복감이 평균보다 높은 연령대는 20~30대이나 20대가 전기대비 1.2p 하락한 45.9, 30대도 0.5p 하락한 44.1을 기록
  · 50대 이상 고령자의 경제적 행복감은 평균보다 낮고 전기대비로도 하락

-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20~30대가 높았지만 20대는 전기대비 하락
  ·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상승함
  · 2013년 상반기를 가장 낙관적으로 보는 연령층은 30대로 전기대비 12.6p 상승한 156.6으로 가장 높았음. 반면, 50대 이상 고령자들은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자세를 유지

<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

	20대		30대		40대		50대		60대 이상	
경제적 행복지수	45.9	-1.2	44.1	-0.5	40.4	0.1	36.4	-1.3	35.7	-1.3
경제적 행복 예측	146.0	-2.8	156.6	12.6	137.8	12.4	97.0	1.8	100.0	14.0

○ (소득별) 저소득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큰 폭으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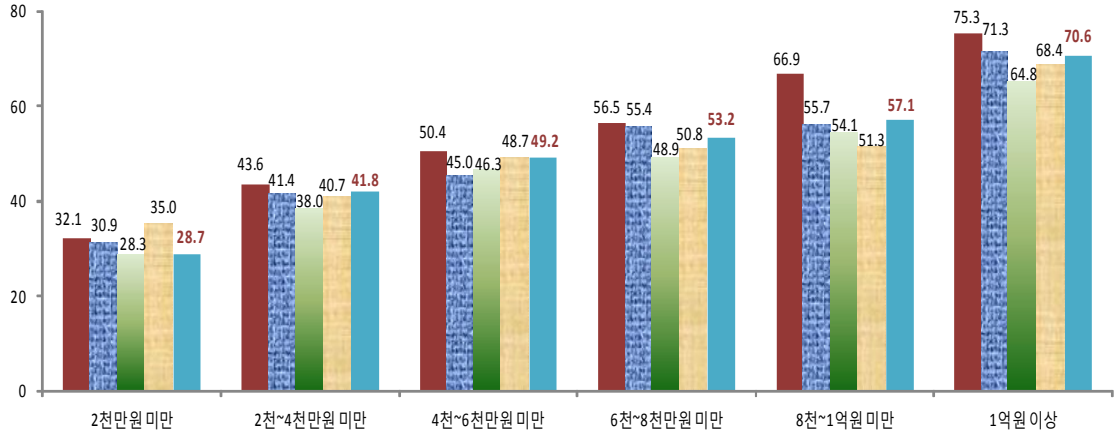
- 저소득층의 경제적 행복감이 크게 하락하면서 고소득층과 경제적 행복감이 최대 2.5배 격차를 보임
  · 소득별로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낮은 계층은 2천만원 미만으로 전기대비 6.3p 하락한 28.7을 기록. 경제적 행복감이 가장 높은 계층은 1억 원 이상으로 70.6을 기록하여 저소득층과 거의 2.5배의 경제적 행복감 격차를 보임

- 소득이 높을수록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자세를 유지

  ·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전기대비 상승함

  · 소득 규모별로는 '6천~8천만원 미만' 소득자보다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고 '2천만원 미만' 소득자가 가장 비관적인 자세를 보임

<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

	2천만원 미만		2천~4천만원미만		4천~6천만원미만		6천~8천만원미만		8천~1억원미만		1억원 이상	
경제적 행복지수	28.7	-6.3	41.8	1.1	49.2	0.5	53.2	2.4	57.1	5.8	70.6	2.2
경제적 행복예측	106.8	0.8	135.4	10.2	139.6	3.6	155.6	26.8	152.0	21.2	137.5	-5.3

○ (자산별) 저액자산가의 경제적 행복감이 전반적으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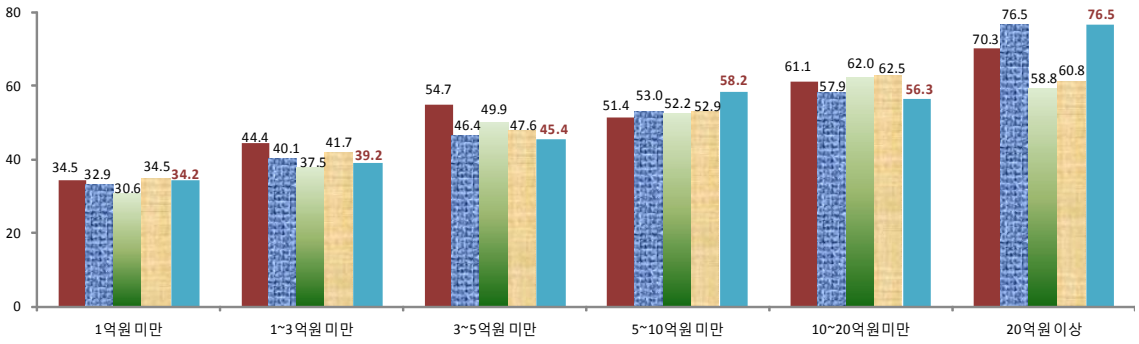
- 고액자산가일수록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고, 5억원 미만 자산가의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모두 하락

  · 경제적 행복지수는 자산이 많을수록 높았음. 특히 5억 원 이상 자산가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평균보다 높았고 5억 미만은 전기대비 모두 하락하며 악화

-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도 자산이 많을수록 낙관적인 자세를 보였고 전기대비로도 대체적으로 상승함

  ·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20억 원 이상만을 제외하고 모든 자산가 계층에서 전기대비 상승하면서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보다 긍정적 자세로 전환됨

<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

	1억원 미만		1~3억원 미만		3~5억원 미만		5~10억원미만		10~20억원미만		20억원 이상	
경제적 행복지수	34.2	-0.3	39.2	-2.5	45.4	-2.2	58.2	5.3	56.3	-6.2	76.5	15.7
경제적 행복예측	124.6	10.4	123.0	1.8	138.2	11.0	148.0	13.8	150.0	10.8	160.0	-40.0

○ (학력별) 고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평균보다 낮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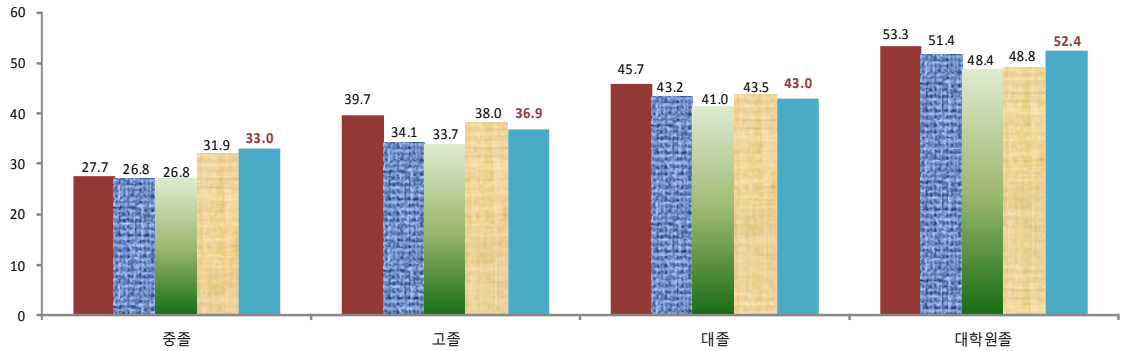
-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았음

  · 대학원졸 학력자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 3.6p 상승한 52.4로 가장 높았고, 중졸 이하 학력자는 전기대비 1.1p 상승했지만 33.0으로 가장 낮게 조사됨

-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중졸 이하는 100 이하로 매우 비관적임

  · 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는 평균보다 높았지만 중졸 이하는 95.4로 100보다 낮아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태도를 보임

<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

	중졸		고졸		대졸		대학원졸	
경제적 행복지수	33.0	1.1	36.9	-1.1	43.0	-0.5	52.4	3.6
경제적 행복예측	95.4	3.8	124.2	15.6	137.6	7.6	130.0	-3.4

○ (혼인 상태별)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경제적 행복감이 하락했지만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전기대비 낙관적으로 변화

- 미혼자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기혼자보다 더 높았음
  · 경제적 행복지수는 미혼자가 43.4로 기혼자의 39.7 보다 높았음

-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
  ·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 지수도 미혼자가 150.6으로 기혼자의 122.6보다 높았고, 그 격차도 28p 상당히 컸음

<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	기혼자		미혼자	
경제적 행복지수	39.7	-1.0	43.4	-0.5
경제적 행복 예측	122.6	7.6	150.6	6.4

○ (지역별) 충북, 부산, 제주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음

- 16개 시도 중 충북, 부산, 제주 등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았음
  · 경제적 행복지수는 충북이 45.4로 가장 높았고, 부산과 제주가 45.2로 공동 2위를 차지하였음. 이들 시도의 경제적 행복감은 전기대비로도 부산(6.1p), 충북(6.3p), 제주(5.0p)로 상승폭이 높았음
  · 서울과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, 인천, 대구의 경제 행복지수는 평균대비 높았으나, 광주, 서울, 대전 지역의 경제적 행복감은 낮았음

- 최근 지역개발의 기대감이 높아진 충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음
  · 지역별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한 충북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에 선정되면서 세종시와 연계된 발전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고, 제주(45.2, 2위)는 국내외 관광 수요 증가 등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높았다고 해석됨

<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	상위권						중위권					하위권				
	1	2		4	5		가나다 순					가나다 순				
지역	충북 (45.4)	부산 (45.2)	제주 (45.2)	울산 (42.4)	인천 (42.3)	강원 (42.3)	경남	경북	대구	전남	전북	광주	경기	대전	서울	충남

3. 국민 행복 제고 가능성 점검

○ **2012년 12월 현재 우리 국민 80.6%의 경제적 행복감은 1년 전과 비교해서 제자리 수준이거나 후퇴한 것으로 조사[5]됨**

- 귀하의 경제적 행복감은 1년 전과 비교해 어떠하십니까? 라고 질문한 결과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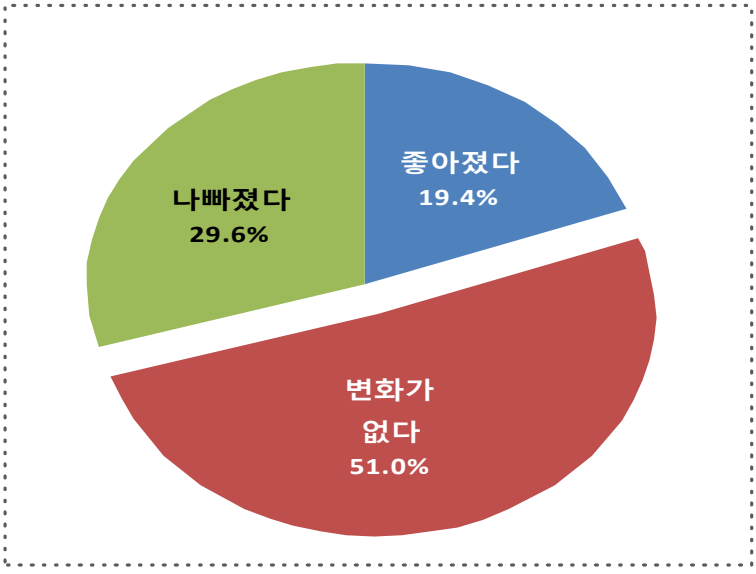
· 전체 1,014명 중에서 51.0%(518명)은 경제적 행복감이 '변화가 없다'고 응답했고, 29.6%(299명)는 1년 전과 비교해 나빠져 우리 국민 80.6%의 경제적 행복감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

· 전체 응답자 중 19.4%(197명)만이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졌다고 응답함

· 응답자들 중 20~30대, 미혼, 전문직 또는 공무원 종사자, 8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행복감은 좋아졌다고 응답한 반면, 기혼이면서 50~60대, 자영업자, 2천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들의 경제적 행복감은 1년 전과 비교해 악화됨

· 이는 대외 불확실성과 더불어 내수 경기 부진과 높은 생활물가 상승, 일자리 불안 등이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음

<경제적 행복감 상승 여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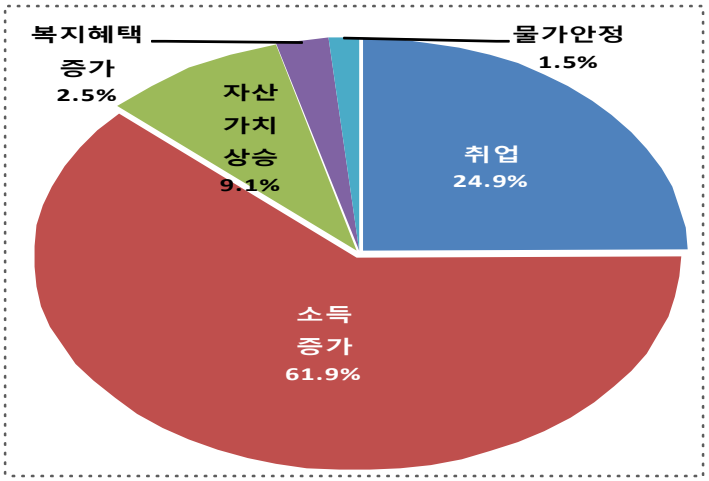
5) 금번 조사는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5일간 전국의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,014명을 전화 설문했으며 오차범위는 95% 신뢰수준, ±3.08%임.

○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 상승은 소득과 일자리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음

- 경제 행복감이 좋아졌다면, 그 원인은?

· 경제적 행복감이 "좋아졌다"는 응답자는 19.4%(197명)임
· 이들은 소득 증가(61.9%), 취업(24.9%), 자산가치 상승(9.1%)순의 원인으로 경제적 행복감이 개선됐다고 응답함

<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진 원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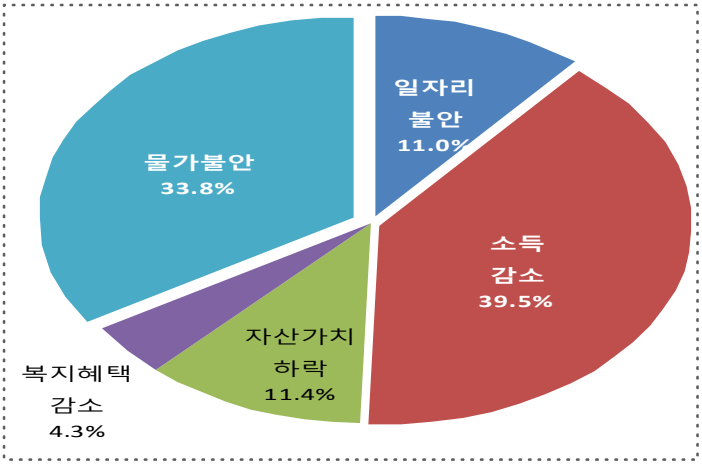


○ 개인의 경제적 행복감 하락은 소득 감소와 물가불안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음

- 경제 행복감이 나빠졌다면, 그 원인은?

· 경제적 행복감이 "나빠졌다"는 응답자는 29.6%(299명)임
· 경제적 행복감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는 소득 감소(39.5%)와 물가불안(33.8%), 자산가치 하락(11.4%) 순으로 조사됨

<경제적 행복감이 낮아진 원인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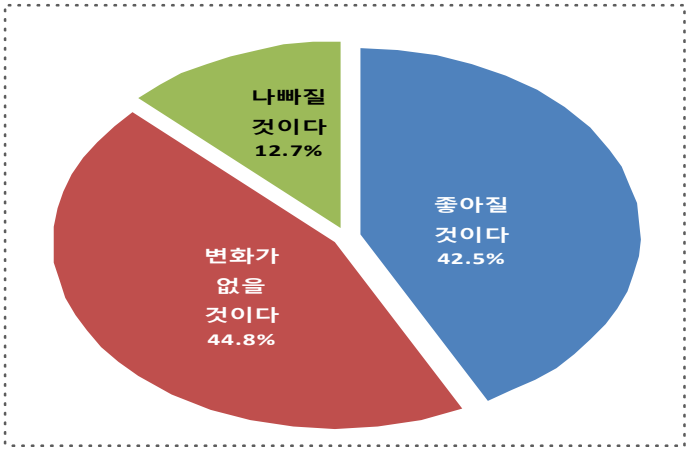
○ 우리 국민의 42.5%는 2013년 경제적 행복감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

- 2013년 새 정부 출범이 귀하의 행복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는가?

· 응답자 1,014명 중 새 정부 출범에도 경제적 행복감이 '변화가 없을 것이다'라는 응답자는 454명(44.8%)이었고, '좋아질 것이다'라는 응답자도 431명(42.5%)으로 2012년 행복감이 좋아졌다는 응답자(197명)의 2배가 넘었음

· 반면 2013년 새 정부 출범과 상관없이 경제적 행복감이 '나빠질 것이다'라는 응답자는 129명(12.7%)에 불과했음

<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적 행복감의 변화 예측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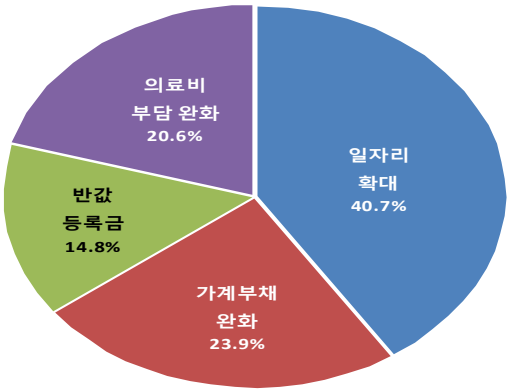
○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, 가계부채 완화 등의 공약이 경제적 행복감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

- 새 정부가 귀하의 경제적 행복감 제고를 위해 집중해야할 공약은? 라고 질문한 결과,

<새 정부에서 집중해야 할 공약>

· 전체 응답자 중 40.7%는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 공약이 경제적 행복감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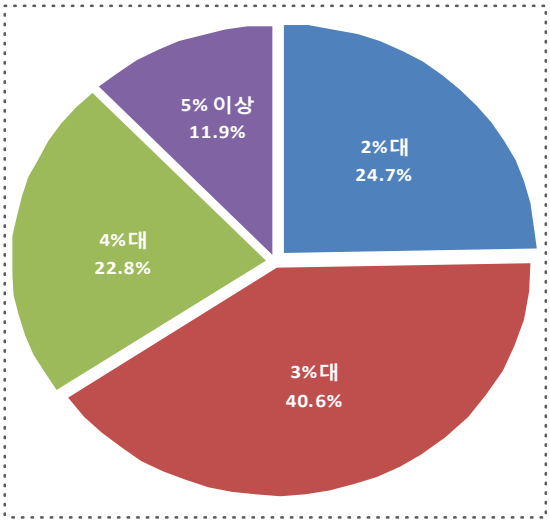
· 한편, 가계부채 완화,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공약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23.9%, 20.6%로 조사됨



○ 우리 국민들의 65.3%는 새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2~3%대로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

- MB정부 5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3.0% 정도 인데, 새 정부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어느 정도 달성가능한지? 라고 질문한 결과,

<새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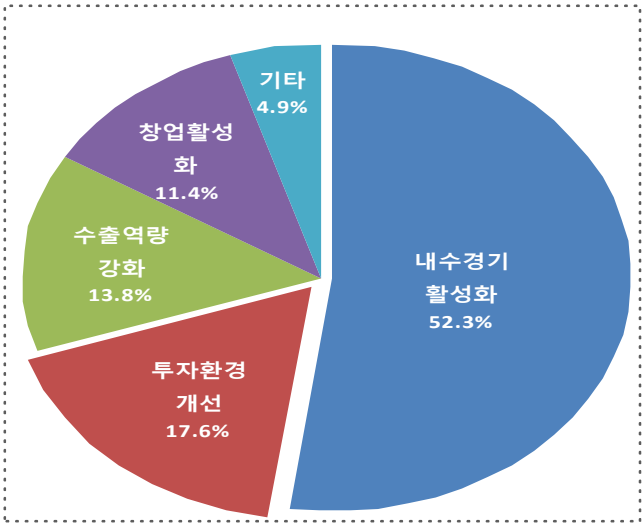
· 전체 1,012명 중 40.6%(411명)는 새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'3%대', 24.7%(250명)는 '2%대'로 응답하여 우리 국민의 65.3%는 2~3%대의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

· 하지만 응답자 중 34.7%는 새 정부가 4~5%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○ 우리 국민들은 새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경기 활성화, 투자 환경개선 등의 경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

- 새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경제 정책이 필요한가?

<2013년 새 정부가 보완해야 할 경제 정책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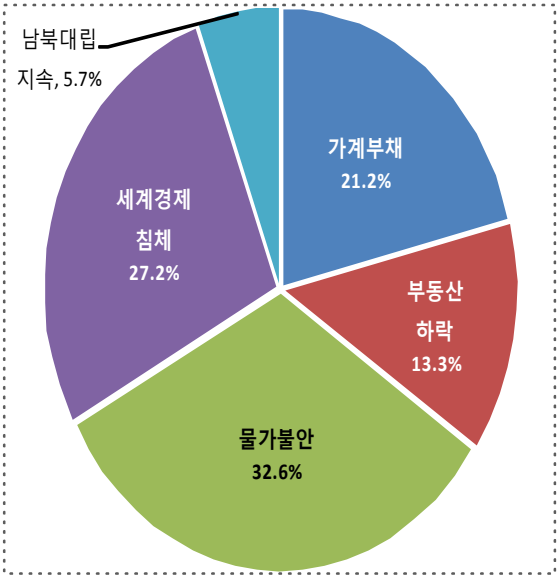
· 전체 응답자의 52.3%는 '내수경기활성화'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꼽았고, '투자환경 개선'과 '수출 역량 강화'는 17.6%, 13.8%가 필요하다고 응답함

· 벤처 등 창업 활성화(11.4%)가 그 뒤를 이음

○ 우리 국민들은 물가 불안과 세계경기 침체, 가계부채 등이 2013년 새 정부의 경제 운용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

- 2013년 새 정부의 경제 운용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은? 라고 질문한 결과,

<2013년 새 정부 경제 운용의 위협요인>



· 전체 1,009명 중에서 32.6%가 물가 불안, 27.2%는 세계 경기 침체, 21.2%는 가계부채 순으로 2013년 새 정부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응답함

· 부동산 하락 13.3%, 남북대립 지속 5.7%도 2013년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4. 시사점

○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

- 2012년 12월말 현재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대졸 이상 학력의 고소득· 미혼의 20대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추정

· 지역별로는 충북, 부산, 제주의 경제적 행복감이 높았음

· 이들 지역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6개월 전보다는 높아졌지만,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낙관적이지 않았음

- 한편,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·저학력의 60대 이상의 자영업자로 추정됨

· 취약 계층으로 구분되는 이들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전기대비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상승하여 경제 상황이 현재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음

○ 2013년 새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낮은 경제적 행복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됨

- **첫째, 국민 대다수가 소득감소와 물가 불안이 경제적 행복감을 낮추는 원인으로 판단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**
  - 2013년에도 기후변화, 원자재 가격 급등, 환율 급변동, 공공요금 인상 등이 생활물가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. 이에 따라 각 요인별로 물가 안정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
  - 특히, 가계지출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보육·교육비 지원, 의료비 지출 감소 등 정책 보완이 필요

- **둘째, 국민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망 확충이 요구됨**
  -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증가에도 일자리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대기업 투자 유인과 중소기업의 세계화에 대한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
  - 특히, 경제적 행복감이 급락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과 재취업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높음
  - 또한 청년, 중장년, 고령자별로 고용 상황이 다른 만큼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연령별로 차별화하고 다양화해 나가야 함

- **셋째, 2013년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체계화시켜야 함**
  - 세계 경기의 높은 변동성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과 수출 급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
  - 가계부채의 안정된 관리를 위해서도 취약계층의 부채를 장기 및 원리금 분할상환,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의 세부화를 강구해야 함
  - 또한, 2013년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수급 조절을 통한 거래 활성화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야 함

기업정책연구실 조호정 선임연구원 (2072-6217, chjss@hri.co.kr)

홍유림 전문연구원 (2072-6243, ylhong@hri.co.kr)

<별첨 1>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

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

-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, 의식,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
  ·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(Economic Happiness Index)로 명명

○ 경제적 행복지수 작성의 목적

-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,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경제·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

- 2007년 12월부터 반기별로 조사 발표

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

-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,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, 종합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

<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 >

		이론 및 근거	내용
①	경제적 안정 지수	Maslow(1934) Need theory	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
②	경제적 우위 지수	Frank Robert(1986)	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
③	경제적 발전 지수	Danniel Kahneman(1979) Prospect theory	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
④	경제적 평등 지수	Veenhoven(2006) Inequality-Adjusted Happiness	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
⑤	경제적 불안 지수	Okun(1976) Misery Index	물가,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

○ **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**

- 경제적 행복지수(EHI)는 '5개 하위지수' 와 '전반적 행복감'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
  -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, 중립 50점,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
  - 경제적 불안은 다른 4개 하위지수와 반대로 계산. 따라서 값이 높을수록 불안감은 낮아짐을 의미함
  -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,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, 보통이다 50점,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
  -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, 중간값 50점임

$$EHI = \frac{\frac{①+②+③+④+⑤}{5} + ⑥}{2}$$

○ **(경제적 행복 예측)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,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**

-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
  - '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' 에 대하여 질문하여, '그렇다'와 '아니다'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,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(BSI 산출방식과 동일)
  - 예로써 '예'가 60% 이고 '아니오'가 40% 이면 60 - 40 =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
  -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, 중간값 100점임

○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

구분		질문	답변
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	① 경제적 안정	나(또는 귀댁의 가장)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.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.	(1)그렇다 (2)반반이다 (3)아니다
	② 경제적 우위	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.	
	③ 경제적 발전	나의 소득,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.	
	④ 경제적 평등	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.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.	
	⑤ 경제적 불안	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.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.	
⑥ 전반적 행복감		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.	
경제적 행복 예측		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.	(1)예 (2)아니오

<별첨 2> 제 11회 경제적 행복지수의 부문별 수치

< 2-1.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	직장인		자영업자		주부		전문직		공무원		기타/무직	
경제적 안정	53.1	-1.1	41.5	-0.3	51.9	4.2	75.0	16.7	81.8	4.8	31.3	-4.9
경제적 우위	51.5	-0.2	45.4	-2.5	55.2	2.4	83.3	16.6	69.6	7.3	42.7	-2.2
경제적 발전	54.6	0.3	33.1	-6.6	38.3	6.5	58.3	12.5	69.6	10.3	21.8	1.0
경제적 평등	27.9	0.9	24.9	-4.7	29.9	-1.2	25.0	0.0	23.6	-7.3	35.4	-1.7
경제적 불안	25.7	-1.2	21.6	-1.3	19.6	-5.2	66.7	25.0	37.5	13.5	25.3	0.9
전반적 행복감	41.4	-3.5	35.3	-3.5	41.4	0.6	50.0	0.0	59.3	9.3	34.2	1.6
경제적 행복지수	42.1	-1.8	34.2	-3.4	40.2	0.9	55.8	7.0	57.9	7.6	32.8	0.2
경제적 행복 예측	134.6	-2.0	121.2	10.6	124.4	23.4	200.0	66.6	154.2	13.0	101.2	11.4

주)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

< 2-2.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	20대		30대		40대		50대		60대 이상	
경제적 안정	56.1	-0.1	54.8	0.8	54.5	3.8	45.6	-0.4	39.4	-5.2
경제적 우위	55.3	-1.3	52.8	-0.3	53.5	3.9	48.9	0.1	46.3	-4.1
경제적 발전	58.2	-2.3	60.0	1.1	47.6	2.9	32.9	1.6	21.9	-0.9
경제적 평등	29.3	1.4	21.9	-4.8	27.9	0.4	28.4	-2.2	38.4	-0.1
경제적 불안	32.4	-1.5	25.9	-2.8	22.7	2.5	22.7	-0.2	21.5	-5.3
전반적 행복감	45.1	-2.0	45.1	0.4	39.5	-2.6	37.1	-2.2	37.5	0.1
경제적 행복지수	45.9	-1.2	44.1	-0.5	40.4	0.1	36.4	-1.3	35.7	-1.3
경제적 행복 예측	146.0	-2.8	156.6	12.6	137.8	12.4	97.0	1.8	100.0	14.0

주)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

< 2-3.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	2천만원 미만		2천~4천만원 미만		4천~6천만원 미만		6천~8천만원 미만		8천~1억원 미만		1억원 이상	
경제적 안정	31.7	-6.7	54.9	5.2	64.0	-1.7	70.5	6.1	70.0	-6.0	79.7	-2.4
경제적 우위	35.9	-6.7	53.7	2.5	62.4	2.9	71.5	7.6	70.0	0.8	85.9	-3.4
경제적 발전	29.2	-6.4	49.6	4.2	57.1	3.7	53.5	-1.5	63.0	14.0	78.1	-2.3
경제적 평등	28.5	-2.9	26.3	-2.7	32.4	3.0	22.6	2.0	34.0	5.2	25.0	0.0
경제적 불안	18.5	-5.6	25.1	0.1	28.9	2.1	29.5	3.4	34.0	3.2	46.9	-3.1
전반적 행복감	28.5	-7.0	41.6	0.2	49.4	-0.6	56.9	1.3	60.0	8.1	78.1	6.7
경제적 행복지수	28.7	-6.3	41.8	1.1	49.2	0.5	53.2	2.4	57.1	5.8	70.6	2.2
경제적 행복예측	106.8	0.8	135.4	10.2	139.6	3.6	155.6	26.8	152.0	21.2	137.5	-5.3

주)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

< 2-4.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	1억원 미만		1~3억원 미만		3~5억원 미만		5~10억원미만		10~20억원미만		20억원 이상	
경제적 안정	42.5	1.9	51.1	-0.5	55.2	-8.3	69.5	8.8	72.5	-6.8	85.0	43.3
경제적 우위	41.6	-0.4	49.7	-2.0	63.8	3.8	72.3	0.9	76.3	0.2	95.0	11.7
경제적 발전	40.6	-1.2	45.2	1.1	48.5	0.3	54.1	10.2	42.5	-24.9	82.5	49.2
경제적 평등	28.0	-1.8	28.5	-0.3	24.8	-1.8	34.6	2.1	26.3	-6.3	10.0	-40.0
경제적 불안	20.8	-2.5	23.3	0.4	29.2	-1.0	36.0	1.4	32.5	-0.1	42.5	-24.2
전반적 행복감	33.5	-0.1	38.8	-4.4	46.6	-2.8	63.0	5.9	62.5	-4.9	90.0	23.3
경제적 행복지수	34.2	-0.3	39.2	-2.5	45.4	-2.2	58.2	5.3	56.3	-6.2	76.5	15.7
경제적 행복예측	124.6	10.4	123.0	1.8	138.2	11.0	148.0	13.8	150.0	10.8	160.0	-40.0

주)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

< 2-5.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	중졸		고졸		대졸		대학원졸	
경제적 안정	36.6	4.8	46.9	2.8	54.2	-0.8	70.6	8.6
경제적 우위	41.0	0.2	48.5	0.5	53.9	-0.2	71.3	16.6
경제적 발전	23.4	0.5	41.5	4.5	51.2	0.1	50.0	6.8
경제적 평등	34.8	-1.8	31.9	-1.7	24.6	-1.5	25.6	-6.7
경제적 불안	22.7	2.8	20.1	-5.3	26.4	0.0	38.1	13.6
전반적 행복감	33.8	0.5	36.0	-2.1	43.9	-0.5	53.8	-0.4
경제적 행복지수	33.0	1.1	36.9	-1.1	43.0	-0.5	52.4	3.6
경제적 행복예측	95.4	3.8	124.2	15.6	137.6	7.6	130.0	-3.4

주)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

< 2-7.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>

	기혼자		미혼자	
경제적 안정	50.2	0.1	53.4	0.3
경제적 우위	51.8	0.4	51.5	-0.8
경제적 발전	42.3	0.9	56.5	-0.1
경제적 평등	28.3	-1.7	26.8	0.1
경제적 불안	23.4	-0.4	29.0	-2.3
전반적 행복감	40.1	-1.9	43.1	-0.7
경제적 행복지수	39.7	-1.0	43.4	-0.5
경제적 행복 예측	122.6	7.6	150.6	6.4

주) 각 항목의 우측 칸은 직전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